



부이그 텔레콤



부이그 부동산



부이그 건설

# 기업개요

2012년 2월



TF1

## 2011



콜라스

## 부이그 간략 소개

부이그는 파리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다양한 사업분야를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산업 그룹이다(파리 증권거래소 주가지수 CAC 40 구성 기업). 세계 80 여 개국 이상에 진출한 부이그의 총 직원수는 130,800 명을 상회한다. 사업부문은 **건설, 통신, 미디어**이다.

부이그는 알스통의 주요 주주이다.  
안정적인 주주 구성, 강력하고 독창적인 기업문화 및 장기적 발전 잠재력을 지닌 시장 포지셔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우 건전한 재무구조를 지닌 부이그는 지난 10 여년간 견조한 실적을 기록하였다.

### 부이그 그룹의 5대 사업 부문

전세계적인 건설업체 **부이그 건설**  
프랑스 부동산 개발의 선두 주자 **부이그 부동산**  
도로 부문의 세계 제일 기업 **콜라스**  
프랑스 제1의 민영 텔레비전 **TF1**  
이동통신, 유선통신, TV 및 인터넷 사업자 **부이그 텔레콤**

### 2011년 부문별 매출액



### 2001년 - 2011년 연평균 성장률

매출액  
**+ 5 %**

그룹 지분순이익  
**+ 12 %**

배당금 상승  
**4.4 배**

## 조직 및 지배구조 2012년 2월 28일 기준

### 경영진

#### 부이그 그룹 본사

**Martin Bouygues**  
회장

**Olivier Bouygues**  
부회장

**Jean-François Guillemin**  
총무 이사

**Philippe Marien**  
그룹 재무 이사  
부이그 텔레콤 회장

**Alain Pouyat**  
정보 및 신기술 총괄 사장

**Jean-Claude Tostivin**  
인사 및 관리 총괄 부사장

#### 5대 사업부문 최고 경영자

**Yves Gabriel**  
부이그 건설 회장

**François Bertière**  
부이그 부동산 회장

**Hervé Le Bouc**  
콜라스 회장

**Nonce Paolini**  
TF1 회장

**Olivier Roussat**  
부이그 텔레콤 사장

### 이사회

**Martin Bouygues**

**Olivier Bouygues**

**Pierre Barberis\***  
전임 Oberthur 부사장

**Patricia Barbizet\***  
Artémis 이사 겸 사장

**François Bertière**  
부이그 부동산 회장

**Francis Bouygues 부인**

**Georges Chodron de Courcel**  
BNP Paribas 부사장

**Lucien Douroux\***  
전임 Crédit Agricole Indosuez 감시  
위원회 위원장

**Yves Gabriel**  
부이그 건설 회장

**Patrick Kron**  
알스통 회장

**Hervé Le Bouc**  
콜라스 회장

**Helman le Pas de Sécheval\***

**Colette Lewiner\***  
Capgemini 부회장

**Sandra Nombret**  
우리사주 대표

**Nonce Paolini**  
TF1 회장

**Jean Peyrelevade\***  
Leonardo & Co 이사회장

**François-Henri Pinault\***  
PPR 회장

**Michèle Vilain**  
우리사주 대표

(\*) 독립 이사

**상세 정보 조회**  
www.bouygues.com



# 좋은 성과를 낸 2011년

**부이그** 그룹은 건조한 사업 실적과 건설 부문의 뛰어난 영업활동으로 2011년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매출액은 기대치를 상회하는 327억 유로에 달했으며(+ 5 %) 경상영업이익은 3 % 증가한 18억 유로, 순이익은 안정적 수준인 11억 유로를 기록했습니다. 건조한 재무구조를 유지하여,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도 경미한 증가세를 보인 33억 2500만 유로에 달했습니다.

**부이그 건설의 사업실적은 매우 좋습니다.** 매출액(98억 200만 유로)은 6 % 상승하였고, 영업이익은 0.2 포인트 상승한 3.6 %를 기록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말 현재 수주잔량은 역사적 수준인 153억 유로로서, 그 중 반이 국제부문의 수주잔량입니다.

**부이그 부동산**은 매출액이 2 % 상승하였으며 예약매물 14,314 채의 기록적 수준으로 **프랑스 주택시장 리더사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8.2 %, 순이익(1억 2000만 유로)은 11 % 성장하였습니다.

**콜라에게 2011년은 적응과 변화의 한해였습니다.** 2010년부터 특히 중부유럽에서 실시한 조정 조치로 매출액(124억 1200만 유로)은 6 %, 경상영업이익(3.8 %)은 0.7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TF1의 전략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TMC 및 NT1의 인수에 힘입어 매출액은 안정적인 수준인 26억 2000만 유로를 유지하

였습니다. 경상영업이익은 2 포인트 증가한 10.8 %에 달했습니다.

**부이그 텔레콤은 목표에 부합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매출액(57억 4100만 유로)은 2 % 증가하였습니다. 발표한 바와 같이 EBITDA는 접속료 차액 감소의 영향으로 12억 7200만 유로를 기록했습니다(- 7 %).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부이그 텔레콤은 이동통신 요금제 부문 369,000 명, 유선 고속통신 부문 433,000 명의 신규고객을 확보하였습니다.

부이그의 순이익에 대한 **알스통**의 기여는 1억 9000만 유로로(2010년 2억 3500만 유로), 알스통은 2011/12년 회계년도의 첫 9개월 동안 수주량이 20 % 증가하는 등 **활발한 영업활동**을 보였습니다. 알스통은 2011/12년 경상영업이익 7 ~ 8 % 달성 목표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이사회는 2012년 4월 26일의 주주총회에 1.6 유로의 **안정적인 배당금**을 제안할 것입니다.

수년간 전 사업부문에서 언제나 그랬듯이, 2012년에도 **부이그**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것입니다.

주주 여러분의 신뢰와, 직원 여러분의 노고와 참여, 애사심에 감사드립니다

*Handwritten signature*

2012년 2월 29일  
회장  
마르탱 부이그

## 2011년 실적

매출액  
**327.06억 유로**  
+ 5 %

경상영업이익  
**18.19억 유로**  
+ 3 %

그룹 지분 순이익  
**10.7억 유로**  
=

부채율  
**40 %**  
+ 17 포인트

순영업투자\*  
**16.58억 유로\***  
+ 17 %

잉여현금흐름\*\*  
**8.62억 유로\***  
- 15 %

주당 배당금  
**1.60 유로**  
=

(\*) 주파수 2.6 GHz 대역 투자  
(2.28억 유로) 불포함  
(\*\*) 운전자금소요 변동 불포함

## 2012년 목표

매출액  
**323.5억 유로**  
- 1 %

# 그룹 프로필



콜라스는 매년 전세계에서 10만 건 이상의 공사를 시공하고 있다.

1952년 창립된  
이래 현재 세계  
80 여개국 이상에  
진출한 부이그 그룹은  
강력하고 독창적인  
기업문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을 추구할 강력한  
장점들을 보유하고 있다.

상세 정보 조회  
www.bouygue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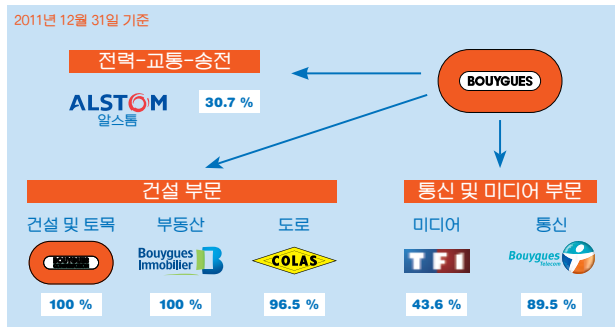
부이그는 건설(건설 및 토목, 부동산, 도로), 통신과 미디어 부문 사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알스통의 주요 주주이다. 부이그 그룹은 파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파리 증권거래소 주가지수 CAC 40 구성 기업, 유로넥스트 파리 A 부문). 2011년 12월 31일 현재 시가 총액은 77억 유로이다.

## 전략

부이그는 다각화된 산업 그룹으로서 수익성 있는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장기적 발전 잠재력이 있는 시장에 포지셔닝하고 있다. 각 사업 분야에서 부이그는 경쟁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고객에게 언제나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사의 상품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이그 그룹은 기회를 포착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데, 특히 성장을 견인하는 국제 부문, 그중에서도 현재 아시아와 중동의 건설 시장이 제공하는 기회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 부이그 그룹 간략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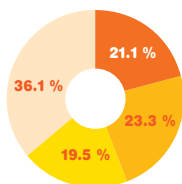
2011년 12월 31일 기준



## 그룹의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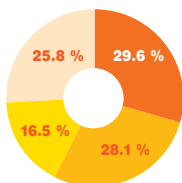
**안정적이 주주 구성.** 자본에 있어서 주주 구성이 안정적이므로 부이그는 장기적인 전략 비전에 우선순위를 둘

지분 비중  
2011년 12월 31일 기준



총 주식 수: 314,869,079

의결권 비중  
2011년 12월 31일 기준



총 의결권 수: 439,994,172

■ SCDM\* ■ 우리사주  
■ 기타 프랑스 주주  
■ 기타 외국 주주

(\*) SCDM은 마르텔 부이그 회장 및 올리비에 부이그 부회장이 지배적 지분을 지닌 기업이다.

수 있다. 부이그의 2대 주요 주주는 마르텔 부이그 회장 과 올리비에 부이그 부회장의 지주회사인 SCDM과, 우리사주이다.

- > 2011년 12월 31일 현재 6만 명 이상의 직원들이 부이그의 지주이며, 이는 파리 증권거래소 주가지수 CAC 40를 구성하는 40대 기업 중 1 위이다.
- > 2011년 말 실시한 부이그 자사주 공개 매입 이후 SCDM은 2011년 12월 31일 현재 21.1 %의 지분과 29.6 %의 의결권을, 우리사주는 23.3 %의 지분과 28.1 %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

**강력하고 독창적인 기업문화.**  
5 대 부문에 공통적으로 내재하는 부이그 그룹의 기업문화는 프로젝트 관리의 노하우와

## 역사

**1952:** 프랑시스 부이그가 건설 부문 전문사 프랑시스 부이그사 (Entreprise Francis Bouygues - EFB) 창립.

**1956:** 부동산 개발 분야로 사업 다각화 (Stim).

**1965:** 프랑스에서 건설 및 토목 분야 사업 확장.

**1970:** 파리 증권시장 상장.

**1972:** EFB에서 부이그로 명칭 변경. 국제 부문 사업 시작.

**1984:** Saur (2005년 매각)와 에너지 및 서비스 전문기업 ETDE 인수.

**1986:** 도로 공사 부문 세계 1위 기업 Screg 인수로 건설 및 토목 분야 세계 1위사로 부상.

**1987:** 부이그, 프랑스 제1 방송사 TF1의 주요 주주가 됨. 현재 TF1은 통합 커뮤니케이션 그룹으로 진화함.

**1994:** 부이그, 프랑스에서 세 번째로 이동통신 사업허가를 취득. 현재 1250만 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부이그 텔레콤은 오늘날 종합적인 전자통신(이동통신, 유선통신, TV, 인터넷) 사업자로 발전함.

**2006:** 알스통의 프랑스 정부 지분을 인수. 부이그는 알스통의 주요 주주가 됨(2011년 12월 31일 기준 31 %).

**2008:** 부이그 텔레콤, 유선통신 서비스 제공 개시.

인사현장의 3대 원칙인 존중, 신뢰, 형평에 기반한 인사관리로 요약될 수 있다.

**견조한 수요에 힘입은 시장 포지셔닝.** 건설의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에서 모두 인프라와 주택 수요가 매우 크다. 지속가능한 건설(전력 소비 건물이나 에너지 생산 건물, 친환경 지역 등)에 대한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신과 미디어 시장 역시 빠른 기술 발전과 사용 증대로 인해 상승일로를 걷고 있다. 모든 사업 부문에 있어 선두주자인 부이그는 각각의 시장에서 뛰어난 임지를 견지하고 있다. 부이그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당사자들의 강한 기대를 상품 및 서비스 제안에 반영함으로써 이를 경쟁 우위로 활용하고 있다.

**매우 건전한 재정 구조.** 부이그는 견조한 재정 프로필을 가지고 있다. 현금흐름을 높게 유지하는 가운데 투자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부이그 그룹은, 부채율이 낮으며 유동성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부이그 그룹은 무디스의 A3 / 안정적 전망 등급 및 스탠다드앤amp;푸어즈의 BBB+ / 안정적 전망 등급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에 힘입어 부이그는 지난 10년간 견조한 재정 실적을 보여왔다. 동기간 그룹의 매출액은 연평균 5 %, 순이익은 연평균 12 % 성장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부이그의 배당금도 4.4 배 증가하였다.

# 부이그 그룹의 직원들

총직원수 2011년 12월 31일 기준:

130,827 명

## 직급

전세계(프랑스 제외)



프랑스



프랑스 내의 직원수\*

76,970명

(전체 직원의 59 %)

평균 연령: 39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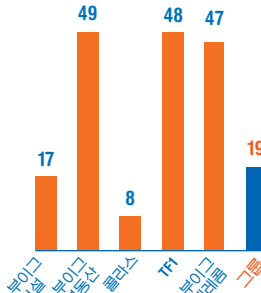
평균 근무기간: 11 년

96 %의 직원이 정규직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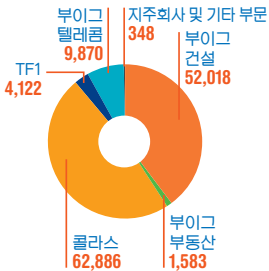
(\*) 프랑스 본토 및 해외 영토

## 부문별 여성 직원수(프랑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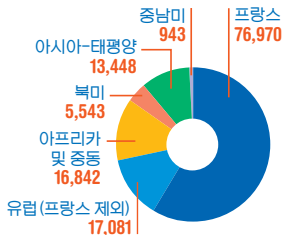
(단위: %)



## 부문별 그룹 직원수



## 지역별 그룹 직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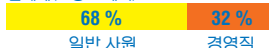
## 2011년 직원 채용:

전세계에서 20,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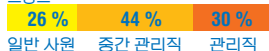
명의 직원 신규 채용,  
그 중 프랑스에서는

9,260 명 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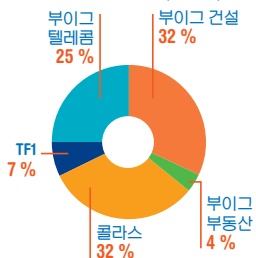
전세계(프랑스 제외)



프랑스



부문별 직원 분포(프랑스)



## 부이그의 인사 원칙

직원들은 부이그의 가장 큰

재산이다. 따라서 양질의

사내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부이그 그룹의인적자본

현장에 명시된 존중, 신뢰,

형평의 3대 원칙은 여러

실행분야로 세분화되며,

각 분야마다 주도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 존중

> 노사대화.

> 모든 직능분야에 있어서  
직원들의 건강 및 안전에  
유의.

> 균형 잡힌 삶 추구.

> 책임있는 사회적, 기업적  
행동 장려.

> 모든 이의 당면과제인  
윤리를 인사분야에서도  
준수.

### 신뢰

> 관계의 질에 중점.

> 미래를 위한 채용 및 용이한  
사내 이동성.

> 기업주식저축 장려.

> 사내 승진 장려.

> 지식 공유.

> 책임 위임.

### 형평

> 역동적 급여 정책 추진.

> 기획의 균등 보장.

> 변화와 교육에 우선순위  
부여.

> 어떤 경우에도 공정성과  
투명성 유지.

# 2011년 주요 사항

ETDE(부이그 건설)과 악시엄(콜라스), 에베자 컨소시엄에 참가하여 파리시 공공장소 조명사업 수주

## 건설 및 토목: 뛰어난 영업활동

파리의 국방부 PPP<sup>1</sup> 사업이나 싱가포르의 주택용 고층빌딩, 쿠바의 호텔, 파리시 공공장소 조명사업 등 프랑스 및 국제부문의 대형 계약 수주에 힘입어, 2011년 12월 말 현재 부이그 건설의 수주잔량은 153억 유로로 역사적 수준을 기록하였다.

## 주택: 프랑스 시장의 리더사 부이그 부동산

2010년 강력한 성장세를 보인 부이그 부동산의 2011년 신규 주택 예약 매출은 기록적인 수준인 14,314 채(4% 증가)에 달했다. 이에 따라 부이그 부동산은 프랑스 주택 시장 리더사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다.

## 콜라스: 역동적 수주

프랑스에서 A63 고속도로 양허 및 PPP<sup>1</sup> 사업, 플레시-로벵송 도로 관리 사업, 캐나다 고속도로, 모리스 공항, 트램웨이(두르, 디종, 카사블랑카 등), 지하철(카라카스, 쿠알라룸푸르) 사업 등, 2011년 프랑스 및 국제 부문에서 콜라스는 대형 계약을 다수 수주하였다.

## TMC 및 NT1 통합

TF1은 TMC 및 NT1의 성공적 인수로 성장세를 타고 있는 무료 지상파 디지털 방송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2011년 광고 매출액을 2% 상승시켰다.

## 부이그 텔레콤: 유선통신의 강력 성장

유선통신 서비스 영업 개시 불과 2년 반만에 부이그 텔레콤은 유선 고속통신 고객 백만 명 고지를 넘었다(2011년 말 현재 동부문고객 120만 명). 초고속 통신 부문도 이러한 역동적 시장 입지에 기여하였는데, 부이그 텔레콤의 초고속 통신 서비스 지역은 이미 7백만 가구를 커버하고 있다.

## 부이그: 자사주 11.7% 재매입

부이그는 주당 30 유로의 가격으로 자본금의 11.7%, 총액 12억 5000만 유로에 달하는 자사주 공개 매입을 주주들에게 제안하였는데, 청약액이 제안 규모를 크게 상회하였다.

## 주요 지표

2011년 12월 31일 현재 직원들은 부이그 자본의 **23.3%**를 보유하고 있다. 부이그는 프랑스 주가지수 CAC 40를 구성하는 40대 기업 중 우리사주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이다.

**40년:** 콜라스는 프랑스 A63 고속도로 40년 양허 계약을 수주하였다.

**11억 유로:** 파리의 국방부 신규 건물 PPP<sup>1</sup> 계약액. 30년 간의 관리 서비스 포함.

2011년 텔레비전 방송 최고 시청률 100건 중 **99건**<sup>2</sup>이 TF1 방송국의 프로그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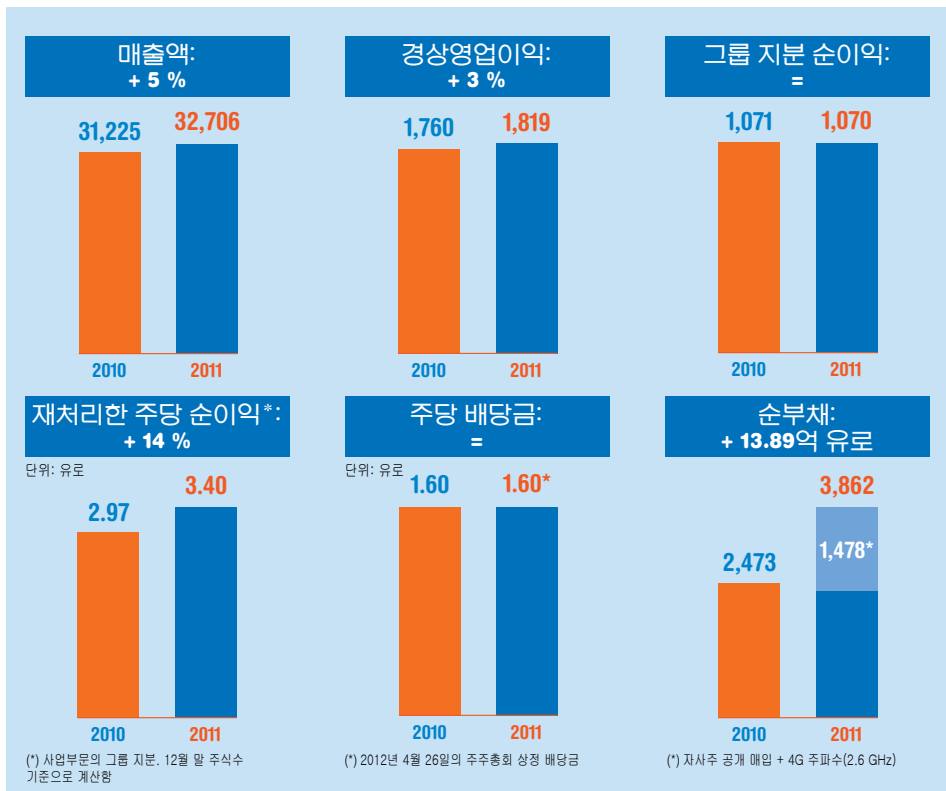
부이그 텔레콤, 고객관계상<sup>3</sup> **1위** 수상. 이동통신 분야는 5년 연속 수상했으며 유선통신 분야는 첫 수상이었다.

(1) 일대형 민자사업  
(2) 메디아메트리의 미디어마켓  
(3) 2011년 고객관계상  
TNS 소프레스-베어링포인트(이통통신과 유선통신 / 인터넷 사업자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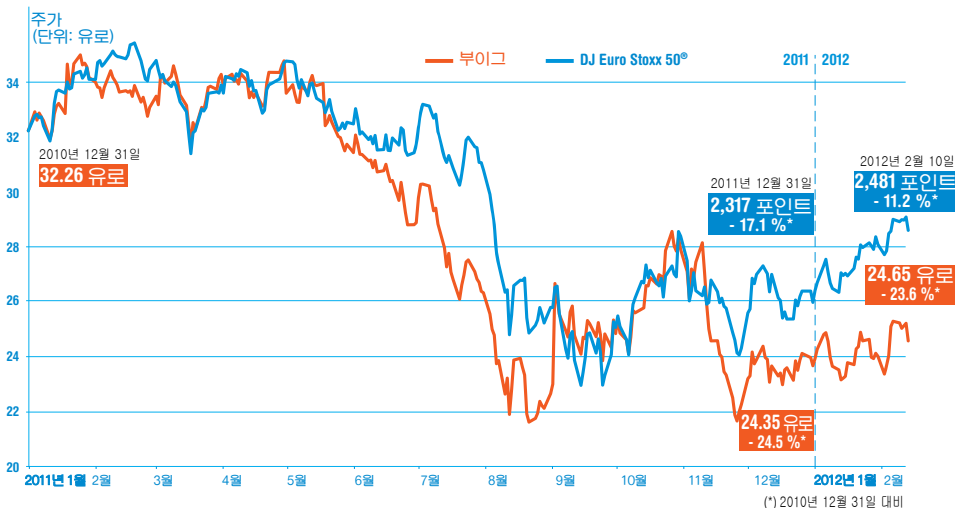
# 부이그 그룹의 2011년 주요 지표

알스틀은 지분법 평가이익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시킴: 순이익에만 기여

(단위: 백만 유로)



## 2010년 말 이후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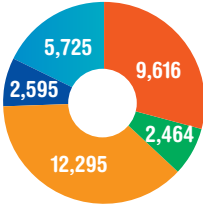


## 사업부문별 기여도

알스툼은 지분법 평가이익을 적용하여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시킴: 순이익에만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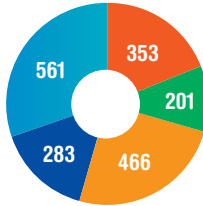
(단위: 백만 유로)

**매출액\*: 327.06억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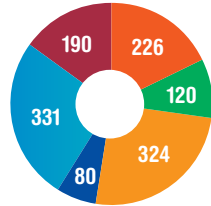
(a) 지주회사 및 기타 부문의 매출액은 1100만 유로

**경상영업이익\*: 18.19억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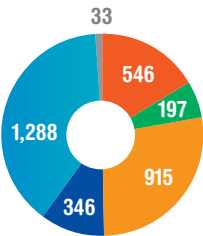
(b) 지주회사 및 기타 부문의 경상영업이익은 - 4500만 유로

**그룹 지분 순이익\*: 10.7억 유로**



(c) 지주회사 및 기타 부문의 순이익은 - 2.01억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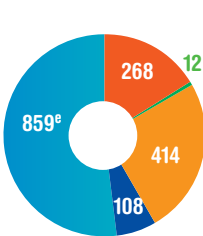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3.25억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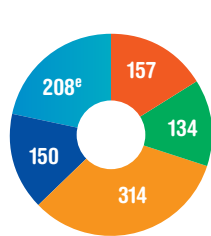
(d) 지주회사 및 기타 부문의 순영업이익은 - 3백만 유로 (e) 2.6 GHz 주파수 투자 제외(2.28억 유로)

(f) 잉여현금흐름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세금 - 순금융비용 - 순영업투자. 잉여현금흐름은 운전자금 소요 변동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지주회사 및 기타 부문의 잉여현금흐름은 - 1.01억 유로

**순영업투자\*: 16.58억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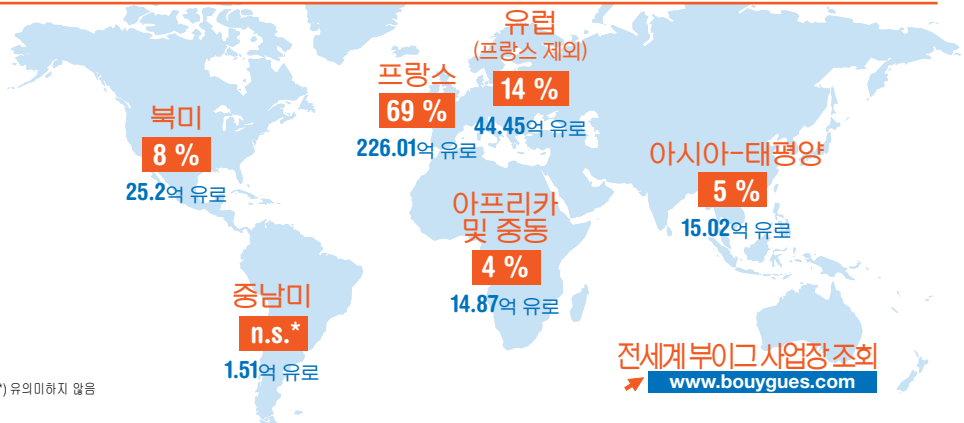


**잉여현금흐름\*: 8.62억 유로**



■ 부이그 건설 ■ 부이그 부동산 ■ 콜라스 ■ TF1 ■ 부이그 텔레콤 ■ 지주회사 및 기타 부문 ■ 알스툼

## 매출액의 지리적 분포도: 327.06 억 유로



(\*) 유의미하지 않음

# 2011년 요약 재무제표

2011년 12월 31일 기준

## 연결 대차대조표

| 자산(단위: 백만 유로)  | 2010          | 2011          | 부채(단위: 백만 유로)    | 2010          | 2011          |
|----------------|---------------|---------------|------------------|---------------|---------------|
| • 유형 및 무형 고정자산 | 7,149         | 7,751         | • 자기 자본(그림 지분)   | 9,317         | 8,361         |
| • 영업권          | 5,531         | 5,580         | • 소액주주 지분        | 1,290         | 1,317         |
| • 고정 금융자산      | 5,679         | 5,855         | <b>자기자본</b>      | <b>10,607</b> | <b>9,678</b>  |
| • 기타 고정자산      | 261           | 256           | • 장기부채           | 6,750         | 6,807         |
| <b>고정자산</b>    | <b>18,620</b> | <b>19,442</b> | • 장기 미지급 비용      | 1,870         | 1,865         |
| • 유동자산         | 11,377        | 12,042        | • 기타 고정부채        | 112           | 203           |
| • 현금 및 현금 등가물  | 5,576         | 3,415         | <b>고정부채</b>      | <b>8,732</b>  | <b>8,875</b>  |
| • 금융상품*        | 13            | 23            | • 금융부채(1년 내 만기)  | 994           | 216           |
| <b>유동자산</b>    | <b>16,966</b> | <b>15,480</b> | • 유동부채           | 14,935        | 15,876        |
| <b>자산 총계</b>   | <b>35,586</b> | <b>34,922</b> | • 단기은행차입금 및 당좌잔고 | 294           | 239           |
|                |               |               | • 금융상품*          | 24            | 38            |
|                |               |               | <b>유동부채</b>      | <b>16,247</b> | <b>16,369</b> |
|                |               |               | <b>부채 총계</b>     | <b>35,586</b> | <b>34,922</b> |
|                |               |               | • 순 금융부채         | 2,473         | 3,862         |

(\*) 금융부채의 정확한 가치 환산

## 연결 손익계산서

| (단위: 백만 유로)           | 2010          | 2011          |
|-----------------------|---------------|---------------|
| <b>매출액</b>            | <b>31,225</b> | <b>32,706</b> |
| <b>경상영업이익</b>         | <b>1,760</b>  | <b>1,819</b>  |
| • 기타 영업이익 및 비용        | 31            | 38            |
| <b>영업이익</b>           | <b>1,791</b>  | <b>1,857</b>  |
| • 순 금융비용              | (330)         | (277)         |
| • 기타 금융이익 및 비용        | 6             | (13)          |
| • 법인세 비용              | (482)         | (528)         |
| • 참여지분의 손익배당          | 278           | 198           |
| <b>순이익 총계</b>         | <b>1,263</b>  | <b>1,237</b>  |
| • 소액 주주 지분            | (192)         | (167)         |
| <b>연결 순이익 (그림 지분)</b> | <b>1,071</b>  | <b>1,070</b>  |

## 연결 현금흐름표

| (단위: 백만 유로)                         | 2010           | 2011                 |
|-------------------------------------|----------------|----------------------|
| <b>영업활동 관련 순 현금흐름</b>               |                |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244          | 3,325                |
| • 단기 지급 세금                          | (501)          | (399)                |
| • 운전자금 소요에 따른 현금흐름                  | (52)           | (56)                 |
| <b>A - 영업활동 관련 현금흐름</b>             | <b>2,691</b>   | <b>2,870</b>         |
| <b>투자활동 관련 순 현금흐름</b>               |                |                      |
| • 순 영업투자                            | (1,423)        | (1,886) <sup>a</sup> |
| • 기타 투자활동 관련 현금흐름                   | (318)          | 9                    |
| <b>B - 투자활동 관련 현금흐름</b>             | <b>(1,741)</b> | <b>(1,877)</b>       |
| <b>재무활동 관련 순 현금흐름</b>               |                |                      |
| • 연내 지불 배당금                         | (674)          | (694)                |
| • 기타 재무활동 관련 현금흐름                   | 446            | (2,431) <sup>b</sup> |
| <b>C - 재무활동 관련 현금흐름</b>             | <b>(228)</b>   | <b>(3,125)</b>       |
| <b>D - 환율 변동 사항</b>                 | <b>105</b>     | <b>26</b>            |
| <b>순 캐시 포지션의 변동 (A + B + C + D)</b> | <b>827</b>     | <b>(2,106)</b>       |
| • 기타 비통화요소 흐름                       | -              | -                    |
| • 기초의 현금                            | 4,455          | 5,282                |
| • 기말의 현금                            | 5,282          | 3,176                |

(a) 4G(2.6 GHz) 주파수 투자 - 2.28억 유로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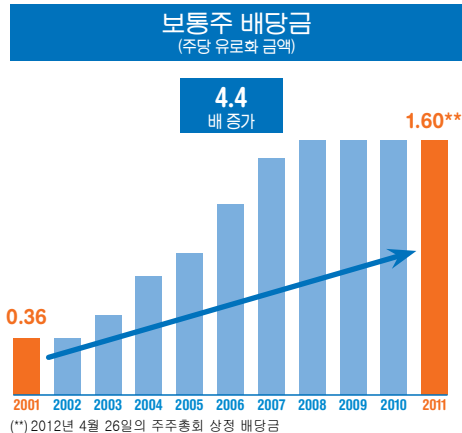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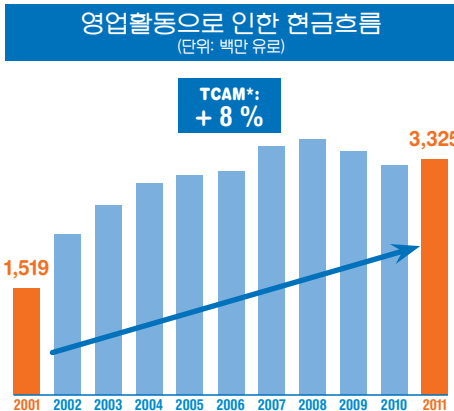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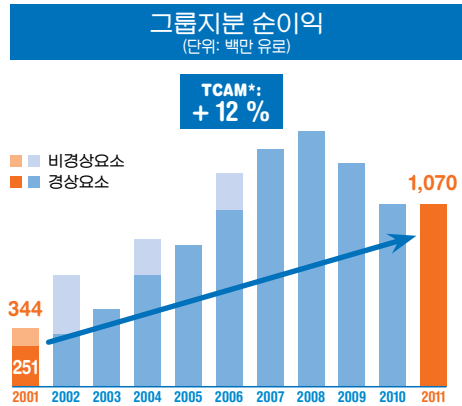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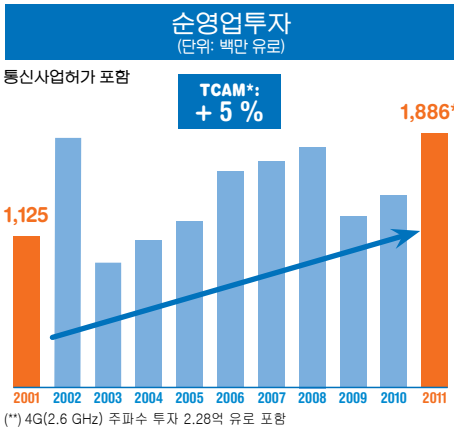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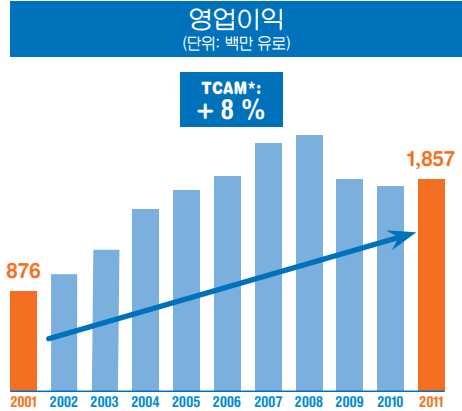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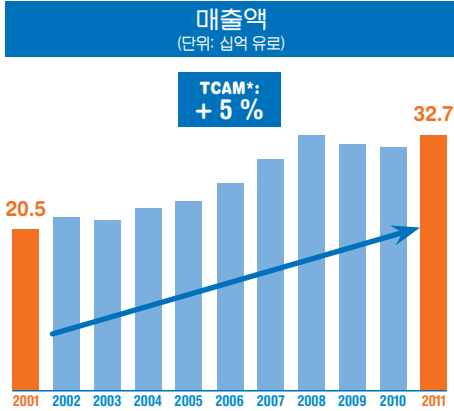
(b) 자사주 공개 매입에 따른 자본금 감소 포함: -12.5억 유로

상세 재무제표 조회  
www.bouygues.com

# 10 년 간의 실적

발표된 수치 그대로를 집계한 것으로, 2001 ~ 2004년은 프랑스 기준, 2005년부터는 IFRS 기준에 따라 산출된 수치이다.

(\*) TCAM: 연평균 성장률



# 부이그의 사회적, 기업적, 환경적 책임



부이그 그룹은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 기업적 과제를 고려하는 가운데 고객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사업부문을 보유한 부이그 그룹은 이중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에너지 효율이나 책임있는 구매 등 모든 계열사 공통의 문제에 있어 진보를 달성해야 할 뿐 아니라, 건설 부문의 지속가능한 건설처럼 각각의 계열사 특유의 안전에 대한 혁신과 해결책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미디어와 통신 부문은 기업내 다양성 진흥을 위해 집중 노력하고 있다.

상세 정보 조회  
[www.bouygues.com](http://www.bouygues.com)

## 가치와 문화

부이그는 언제나 자사의 기업문화에 기반한, 강력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왔다. 이는 주로 그룹이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3대 가치인 존중, 신뢰, 형평을 기반으로 한다. 각 사업부문에서 부이그는 자사의 상품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고객들에게 언제나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부이그의 전략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으며, 부이그의 상품 및 서비스를 통해 강력하게 구현된다. 이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기업적 과제를 진지하고 측정가능한 방식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고객들에게 언제나 보다 나

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 당사자들에게 기업의 책임과 2011년 수행한 활동을 보고하기 위해 부이그 그룹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인 Iso 26000을 사용하고 있다.

## 비전과 포부

부이그 그룹의 전문분야는 미래의 도시라는 개념 안에 자리한다. 미래의 도시는 도시계획에 환경 보호가 통합되어 있으며, 개인 생활과 사회생활이 양립할 수 있는 공간에서 보다 더 나은 삶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이다.

## 지배구조

부이그 그룹의 부회장 올리비에 부이그가 그룹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활동을 직접 챙기고 있다.

본사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품질 안전 환경(QSE) 부서는 전체적인 사업 수행을 총괄하고 있으며 특히 계열사의 지속가능한 발전 부서에 선행사례를 공유, 전파하고 있다.

## 당사자들과의 대화

부이그 그룹은 주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함으로써 보다 기대에 부응하는 동시에 부이그의 사업에 대한 당사자들의 이해를 제고하는 정책을 설립하였다. 각 계열사 또한 자사의 특수 주제에 대해 당사자들과 대화의 장을 확립하였다. 또한 계열사간의 거리를 좁히고자 현지 담당자(사업장, 공사장 등)를 지명하였다.

## 윤리 및 인권

부이그 그룹은 사업 수행에 있어 가장 엄격한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관리자와 직원들을 핵심적인 공동 가치 아래 결집하고 있다. 이들 가치는 전 직원에게 배포하고 인식제고 캠페인을 통해 전개하고 있는 윤리헌장에 명문화되어 있다. 그룹의 각 계

## 다양성

다양성은 부이그 그룹 인사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부이그 계열사들은 예를 들어 남녀 평등, 노인 고용, 장애인을 위한 시설 등 구체적인 조치들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관련 정책은 우선적인 실천사항으로서, 경우에 따라 Agefiph\* 협정을 체결하거나 인식제고 운동, 교육, 현지

담당자 지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개하고 있다. 보호 및 적합 부문과의 매출액 증가도 본 정책의 일환인데, 많은 경우 협력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기관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게 된다. 3년 전부터 노력에 부합하는 결실을 맺고 있다.

TF1과 부이그 텔레콤은 프랑스 규격협회 Afnor의 다양성 라벨을 획득함으로써 차별 방지,

대우의 균등 및 다양성 진흥 분야의 선행사례를 입증하였다. TF1은 미디어 그룹으로서는 최초로 이 라벨을 받았다.

이러한 역동적 진보의 추구를 통해 TF1과 부이그 텔레콤은 기회의 균등과 다양성을 위한 활동들을 최적화하고 영속화하고자 한다.

(\*) 장애인의 직업생활 통합을 위한 기금 관리 협회

열사는 이러한 정책을 실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자의 사업영역 및 입지와 관련된 방식을 통해 보완하고 있다. 또한 UN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 헌장들을 준수하고 있다. 한편 부이그 그룹의 책임 있는 구매 정책은 헌장을 통해 명문화되어 있다. 가장 환경을 존중하며 윤리 원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장려하는 동시에, 납품업체 및 하도급업체와 균형잡힌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 사내 관계 및 근로조건

부이그 그룹은 사회 파트너들과 건설적인 대화를 발전시키고, 직원들의 사생활과 직장생활의 균형에 우호적인 정책을 추구하며,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건강 및 안전 부문의 뛰어난 실적을 보장하고 있다. 사업 특성상의 특수 위험요인으로 인해 건강 및 안전이 매우 중요한 건설 자회사는 엄격한 예방정책을 통해 동부문 타기업보다 뛰



부이그 건설 전기  
부분 책임자  
소피 갈리

## 에너지 / 탄소 전략

기후변화  
관련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는 부이그  
그룹은 에너지  
/ 탄소 전략을  
RSE\* 정책의  
우선순위로  
책정하였다.  
그룹 차원의 제1  
차 온실가스  
감축 운동은 2011  
년 실행되었다.  
  
그룹 차원에서  
탄산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에너지  
의존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연료 및 전기 소비

최적화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부이그는  
고객들에게  
"저탄소" 상품  
및 서비스를  
권장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소비가 매우  
낮은 패시브  
빌딩을 에너지  
생산(positive  
energy) 건물로  
리노베이션  
하는 것이나,  
에너지저소비건물  
(BBC) 라벨  
건물 건설,

에너지효율계약  
(CPE) 실행 등을  
들 수 있다.

부이그 그룹은  
또한 Iso 50001  
등 최신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부이그 텔레콤의  
고객지원센터와  
데이터 센터 한  
곳이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대해 Iso 50001  
인증을 받은 바  
있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어난 실적을 보이고 있다.  
2011년에도 부이그 그룹  
은 상당수의 채용을 유지  
하였으며 역동적인 급여  
체계, 기업주식저축, 사내  
승진, 이동성을 장려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쳤  
다(4 페이지 참조).  
부이그는 자사의 기업문  
화에 따라 책임, 교육 및  
지식 공유를 장려한다. 또  
한 실행계획을 통해 출신  
배경이나 연령, 성별, 장  
애와 무관한 처우의 형평  
성과 기회의 균등을 실현  
하고 있다.

### 친환경 실천

부이그 그룹은 천연자원  
과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  
고 폐기물 및 탄산가스 배  
출을 감축할 뿐 아니라 위  
생 및 독물 영향을 평가,  
제한하며 생물학적 다양

성을 보존하기 위한 다양  
한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이그 및 계열  
사는 IT 및 전자제품을 수  
거, 재활용하는데, 이는 연  
간 2만 대에 달한다. 부이  
그 건설은 공사현장의 바  
람직한 환경 관리를 위한,  
Ecosite라는 사내 라벨을  
전개하였다. 부이그 부동  
산은 지속가능한 건물 및

도시계획 분야에서 혁신  
적인 솔루션을 개발하였  
다. 콜라스는 유해 폐기물  
의 제거 또는 부가가치 창  
조 정책을 실천하고 있으  
며 도로 건설시 중고 소재  
의 재활용에 노력하고 있  
다. TF1은 방송 프로그램  
을 통해 이 점에 대한 시  
청자들의 인식제고에 힘쓰  
고 있다. 부이그 텔레콤은  
중고 휴대폰 재활용 서비  
스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  
하고 있다.

생물학적 다양성을 위한  
활동들은 건설 부문, 특히  
기간산업 분야(부이그 건  
설)와 채석장(콜라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혁신

부이그는 계열사 연구소의  
뛰어난 활동에 힘입어 혁  
신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보완하여 그룹 전체를 위  
한 전문가 그룹인 e-랩은  
교육 활동 및 전략 모니터  
링을 수행한다. e-랩은 혁  
신을 촉진하고 기술 변화  
를 분석하며, 프로토타입  
제품 및 새로운 툴을 개발  
함으로써 비용 절감 및 환  
경 보호 제고에 일조한다.





## 지역 발전 및 후원

지역 공동체 참여는 연대 활동과, 인근 지역 주민 중 직원을 채용하는 등 지역 자원을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부이그 건설과 콜라스는 진출한 지역 및 국가의 사회 경제 생활 속에 통합되어 지역의 협회 및 교육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한다.

부이그 그룹의 기업 참여는 5 개의 전담 재단을 통해 본사 및 주요 계열사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만, 지역에 자리한 부이그 사업장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부이그 주식회사의 경우, 후원정책은 의학연구, 교육, 문화의 3대 활동영역을 아우르고 있다. 학생들에게 후원자를 지정해 주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프랑시스 부이그 재단은 교육 분야 활동의 줄은 예라 하겠다.

## 지속가능한 건설

**지속가능한 건설**은 공사 때부터 친환경적 설계를 통합하는 부이그 그룹의 기업발전 주요 전략 중 하나이다.

부이그는 자사의 R&D 및 혁신 부서를 통해 특히 건물의 편의기능 제어 분야의 매우 특수한 노하우를 개발하였다.

부이그 건설은 엄격한 프랑스와 국제 기준 및 라벨을 기반으로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신규 건축 건물이나 리노베이션 대상 건물의 **에너지**

**효율 관리** 틀을 개발하였다. 본사 건물인 쉐린저의 리노베이션이나 그룹의 다른 기업 본사(ETDE, 노르파크 등) 건물 건설 및 관리가 상징적인 예라 하겠다.

부이그 부동산은 **환경 분야 최신 혁신을 사용하여 건물을 건설함으로써** 법규의 의무조항을 앞서가고 있다. 소비하는 에너지보다 생산하는 에너지가 많은 (positive energy) 신세대 사무실 건물 Green Office®

이후(그중에 첫 건물을 완공하여 운용중), 부이그 부동산은 지속가능 지구 실현을 목표로 하는 UrbanEra®를 런치하였다.

콜라스는 **생산에 에너지 소모가 더 적은 코팅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석유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를 사용하는 일련의 제품을 개발하였다.

# 기업의 책임 2011년 현황



| 부문 목표                                         | 지표                                        | 단위  |
|-----------------------------------------------|-------------------------------------------|-----|
| > 환경보호 및 삶의 조건 향상을 위해 뛰어난 품질의 건축물을 설계, 건설, 운용 | 전체 수주량 중 환경 라벨이나 인증 건물 비중                 | %   |
|                                               | Ecosite <sup>a</sup> 라벨 공사장 비중            | %   |
| > 협력업체와 하도급업체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RSE) 실천에 참여하도록 유도  | 협력업체 및 하도급업체 RSE 현장을 업무에 통합한 계열사가 공사한 매출액 | %   |
| > 안전 및 보건에 있어 리더사                             | 생산직 직원들의 산재 사고 빈도 <sup>b</sup>            | (c) |
|                                               | 생산직 직원들의 산재 사고 중증도 <sup>b</sup>           | (d) |
| > 남녀 평등 장려                                    | 총 관리직 사원 중 여성 관리직 사원 비중                   | %   |



|                                    |                                                                           |                |
|------------------------------------|---------------------------------------------------------------------------|----------------|
| > 그린 부동산을 성장 동력으로 추진               | 환경 인증 그리고/또는 라벨(H&E, HQE®, BBC-effinergie <sup>(1)</sup> ) 하에 이루어진 매출액 비중 | %              |
|                                    | BBC-effinergie® 주택 판매                                                     | 채              |
|                                    | 연중 공사중이거나 인도완료된 에너지 생산(positive energy) 사무실 면적                            | m <sup>2</sup> |
| > 혁신 경영 및 지속가능한 발전 강화: 조직편제 및 실무사항 | 부동산 프로그램에 Bilans Carbone®(탄소평가) 실시                                        | 건              |
|                                    | 이동 감소를 위한 화상회의                                                            | 시간             |
| > 남녀 평등 장려                         | 총 관리직 사원 중 여성 관리직 사원 비중                                                   | %              |



|                               |                                             |                     |
|-------------------------------|---------------------------------------------|---------------------|
| > 지역내 대화 및 소재 생산장 수용성 진흥      | 지역내 대화 구조가 적용되는 가운데 생산된 자재의 매출액 비중(범위: 전세계) | %                   |
| > 대부분의 국가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소 제품을 제안 | 고객들에게 제안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용 대안                    | CO <sub>2</sub> 환산톤 |
|                               | 고객들이 수용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용 대안                     | CO <sub>2</sub> 환산톤 |

BBC: 전력 저소비 건물. - Bepos: 에너지 생산(positive energy) 건물 - H&E: 주택과 환경 HQE®: 고품질주택 - QSE: 품질, 안전, 환경 - RSE: 기업의 사회적 책임 (a) 공사장의 생태발자국 감소를 목표로 하는 사내 환경인증 (b) 본 지표는 발표 후 유관 당국의 승인에 따라 추후 교정될 수 있음. (c) 근무 중단을 필요로 하는 산재건수 x 1,000,000 / 근무 시수

| 2010            | 2011            | 비고                                                                                                                     | 2012년 실천 사항                                                                                             |
|-----------------|-----------------|------------------------------------------------------------------------------------------------------------------------|---------------------------------------------------------------------------------------------------------|
| 53              | 55              | > 환경 라벨이나 인증 작업의 진전, 내부 전문성 강화 및 모든 사업에 탄소 평가 실행                                                                       | > 새로운 서비스 개시: 에너지 소비 측정 및 모니터링, 에너지, 에너지효율계약(CPE), 에너지 생산(positive energy) 건물, 친환경 지역                   |
| 68              | 76              | > 공사장의 탄소발자국 감소를 목표로 하는 Ecosite <sup>a</sup> 친환경 작업방법론 전개                                                              | > Ecosite의 지속적 전개 및 생물학적 다양성 전담 실행계획 시작                                                                 |
| 87              | 82              | > 협력업체와 하도급업체가 QSE 및 인권 증진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 RSE 평가, 구매 담당자 교육                                                             | > WWF와의 파트너십 차원에서, 목재 제품 구입에 있어 책임있는 구매 정책 적용                                                           |
| 7.42            | 6.13            | > 모든 계열사에서 안전 캠페인(공사장, 도로 안전, 중독)을 지속적으로 추진                                                                            | > 공사장의 전체적 조직에 있어서 작업대의 인체공학적 설계 강화                                                                     |
| 0.34            | 0.25            | > 파견 근로자들에게 위험 방지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부이그 앙트르프리즈 프랑스-유럽과 3 개 계약직 파견사 사이의 협정 체결                                                 | > 여러 계열사에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독되지 캠페인을 실시                                                                    |
| 21 <sup>e</sup> | 21 <sup>e</sup> | > 2010년 실행한 조사의 결과, <여성의 위치와 변화>에 대한 실행계획 및 관리직 교육 프로그램 <여성으로서 성공하기> 수립                                                | > 업무의 여성화 및 여성의 변화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br>> <기회의 균등> 교육 지속적으로 실행                                               |
| 89              | 94              | > 2010년 7월 이후 모든 주택 프로그램에 BBC-effinergie <sup>(f)</sup> 라벨 적용                                                          | > 모든 사무실 건물에 BBC-effinergie <sup>(f)</sup> 라벨 획득                                                        |
| 6,000           | 11,150          | > 2011년 판매된 BBC-effinergie <sup>(f)</sup> 주택 수 86 % 증가                                                                 | > 부동산 프로그램 두 건을 인도함으로써 주택 부문 Bepos 모델을 확정                                                               |
| 23,000          | 23,000          | > 최초로 브리암 인증 "우수(excellent)" 등급을 획득한 드종 Green Office <sup>(g)</sup> 인도                                                 | > Green Office <sup>(g)</sup> 개발(프랑스 수도권 일-드-프랑스 지방에서 두 건 진행중)                                          |
| 149             | 210             | > 부이그 부동산 사업에 최초로 Bilan Carbone <sup>(h)</sup> 를 전체적으로 실시<br>> 모든 주택 사업에 Bilan Carbone <sup>(h)</sup> 를 실시하기 위해 톨 업데이트 | > 사무실 건물용 Bilan Carbone <sup>(h)</sup> 실시 확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1차 계획 수립                                     |
| 6,700           | 7,195           | > 화상회의 사용 7 % 증가, 또한 항공편 및 기차편 출장 21 % 감소(평균 km/직원)                                                                    | > 화상회의 및 이동 근무 톨을 통한 원거리 근무를 장려하고 계속 실천                                                                 |
| 34.7            | 36.5            | > 총직원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3 년간 10 % 증가                                                                                       | > 남녀 동수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
| 46              | 44              | > 2011년 범위 변경<br>> 이제 모든 지역에서, 특히 골재채취장 및 채석장의 경우 수용성이 매우 높은 정책                                                        | > 적용률 50 % 달성                                                                                           |
| 75,000          | 180,000         | > ÉcologieL <sup>(g)</sup> 개발 완료 및 Seve <sup>(h)</sup> 내 통합 이후, 업계 전반에 걸친 환경비교톨 공유, 톨 안정화 및 사용자들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한 해       | > 프랑스: Seve <sup>(h)</sup> (도로) 및 Éco-Cana(배관) 사용 강화<br>> 국제 부문: 최소 1개국에서 Seve <sup>(h)</sup> 다국어 버전 전개 |
| 21,000          | 29,000          |                                                                                                                        |                                                                                                         |

(d) 근무종단일 수 x 1,000 / 근무 시수 (e) 범위: 프랑스 (f) 신규 건설 주택의 경우 1년 최대 에너지 소비량은 1 차 에너지 기준 평균 50 kWh/m<sup>2</sup>/년.

(g) 환경비교 소프트웨어 (h) 입찰시 고객이 친환경 옵션을 평가할 수 있게 해 주는 도로 업계용 전문 소프트웨어

# 기업의 책임 2011년 현황



| 부문 목표                                                     | 지표                                     | 단위 |
|-----------------------------------------------------------|----------------------------------------|----|
| > 생산시 역청 코팅재 재활용 장려(소재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 코팅재 생산 중 재활용 역청 코팅재 비중<br>(범위: 전세계)    | %  |
| > 에너지 절감 및 증기 노출 감소를 위해 "저온" 아스팔트 및 코팅재(3E®, EcoMat 등) 장려 | 콜라스의 전세계 코팅재 생산량 중 저온 코팅재의 비중(범위: 전세계) | %  |
| > 직원들에게 응급 구조 교육                                          | 직장내 응급 구조 자격증 보유 직원 비중<br>(범위: 전세계)    | %  |



|                                                    |                                               |   |
|----------------------------------------------------|-----------------------------------------------|---|
| > 윤리 원칙 적용 보장, 법규 프레임 개발에 참여                       |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 관련 CSA의 가입(시정 요구, 경고) (2010년 실적) | 건 |
| > 대중과, 기타 당사자들과의 대화 추구                             | <대중 홍보> 부서를 통한 접촉                             | 명 |
|                                                    | 트위터 팔로워                                       | 명 |
| > 프로그램 및 내용상의 대표성에 있어서 다양성 보장, 모든 이들에게 프로그램 접근성 보장 | 자막 제공 프로그램 비중(TF1 방송국)                        | % |
| > 책임있는 구매: TF1 그룹의 RSE 정책을 기업의 가치사슬에 전파            | RSE 정책 감사를 받는 협력업체 수                          | 개 |
| > 기업내 다양성 증진                                       | 다양성에 대해 교육받은 직원 수                             | 명 |
|                                                    | TF1 재단의 지원을 받는 취약 지역 출신 학생 수                  | 명 |



|                                          |                                              |      |
|------------------------------------------|----------------------------------------------|------|
| > 서비스 약정 이행 및 휴대폰 및 Bbox 사용을 돕기 위한 고객 지원 | 이동통신, 유선통신, 인터넷 부문 고객관계상 순위(TNS 소프레스-베어링포인트) | 위    |
| > 기업의 생태발자국 감소 및 고객의 생태발자국 감소에 기여        | 전년도 대비 에너지 소비 변화(사무실, 통신 사업장, 데이터 센터)        | %    |
|                                          | 일반 고객 및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중고 휴대폰 회수                | 대    |
| > 기획의 균등 및 다양성 장려                        | 다양성 라벨                                       | n.a. |
|                                          | 총 관리직 사원 중 여성 관리직 사원 비중                      | %    |

CSA: 프랑스 시청각 위원회 - n.a.: 해당사항 없음 - QSE: 품질, 안전, 환경 - RSE: 기업의 사회적 책임

| 2010           | 2011           | 비고                                                                             | 2012년 실천 사항                                                               |
|----------------|----------------|--------------------------------------------------------------------------------|---------------------------------------------------------------------------|
| 10             | 12             | > 현재 이 비중이 신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선행국 수준에 근접하는 과정 진행중                                 | > 2015년 콜라스 코팅재 총생산량 중 평균 재활용률 15 %를 목표로 선행국 수준 근접을 지속적으로 추구              |
| 6              | 12             | > 미국에서 잘 전개되어 있으며 그외 지역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음                                       | > 강력한 진전을 추구하는 동시에 북미 및 유럽의 일부 생산장에서는 저온 코팅재 100 %를 목표로 할 것               |
| 31             | 32             | > 일정한 성숙도에 도달한 프로그램<br>> 직장내 응급 구조 요원 수 19,950 명에 육박, 2011년 목표 달성              | > 특히 현장 관리직 직원들의 인식제고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2015년 35 % 달성을 목표로 프로그램 계속 추진          |
| 1              | 미발표*           | > CSA와의 항시적인 협의, <온라인 게임 및 내기 현장> 체결, 오디오 서비스 개정, 다양성 대표에 대한 새로운 약정            | > 광고 메시지의 경우, TF1 그룹이 편집하는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 방송과 동일한 의무조항 적용                    |
| 231,000        | 143,954        | > 메일 및 서신을 통한 접촉 건수는감소했으나 질은 향상되었음, 트위터 상의 의견교환 추구                             | > 대중 근접성과 양질의 관계 및 신뢰 유지                                                  |
| -              | 650,000        |                                                                                |                                                                           |
| 95             | 100            | > TF1의 모든 프로그램에 자막 제공, 자막의 품질에 대한 현장 체결                                        | > 오디오 서비스도 개발하고 유관 협회들과 협의                                                |
| 89             | 148            | > 평가 후 협력업체와 협의의 진전, 다양성이라는 주제에 대한 협력업체 참여                                     | > 프랑스 재경부 주관의 <선행국 매관행현장> 체결                                              |
| 404            | 464            | > 관리직 및 제작 참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양성 교육 지속 실행                                           | > 제2차 다양성 연례보고서 발간<br>> 직원 350 명 교육                                       |
| 10             | 12             | > 기업 재단 프로그램 참가 청년 2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                                               | > 2010년 기업 재단 프로그램 참가 청년 중 최소 2 명 채용                                      |
| 1 <sup>a</sup> | 1 <sup>b</sup> | > 인터넷-유선통신 분야는 고객이 인정하는 서비스 품질 수준 확장, 무선통신 분야는 현수준 유지(특히 접객 품질과 신속한 반응에 대한 인정) | > 전직원의 품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고객경청 지침 변경(채널과 절차)                              |
| + 4            | + 4            | > 모든 기술 사업장에 에너지 소비 감소 계획<br>> 2 개 사업장에 Iso 50001 인증 획득                        | > 모든 사업장에 Iso 50001 타입의 경영체제 구축 및 파리 2대 사업장에 인증 획득                        |
| 19,857         | 94,600         | > 모든 부이그 텔레콤 클럽 매장에서 새로운 중고폰 회수 정책 전개, 중고폰 회수 서비스 홍보                           | > 재활용 홍보 및 장려의 지속적 추구<br>> 중고폰 판매 개발                                      |
| n.a.           | 획득             | > 기회의 균등 및 다양성 부서 창설<br>> "전자학습"을 통해 관리직 사원들에게 다양성 장려 교육                       | > 다양성 라벨 점검 감사 합격<br>> 제3차 노령 직원 협정 협상<br>> 도시 취약계층 출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행계획 시작 |
| 33             | 34             | > <여성과 경영> 계획 전개(여성 네트워크 설립, 멘토링, 남녀동등에 대한 교육 등)                               | > 직장내 평등에 대한 협정의 개정조항 협상                                                  |

(a) 4 회 연속 수상(이동통신) (b) 5 회 연속 수상(이동통신), 최초 수상(유선통신 및 인터넷) - (\*) 2012년 9월에 발표 (CSA의 평가서 발간), TF1 인터넷 사이트에 데이터 게재 예정.

# 전세계적인 건설업체

파리에 건설될  
새로운 국방부 건물

## 주요 수치

2011년 매출액  
**98.02억 유로**  
(+ 6 %)

경상영업이익  
**3.6 %**  
(+ 0.2 포인트)

그룹 지분 순이익  
**2.26억 유로**  
(+ 12 %)

수주잔량  
**153억 유로**  
(+ 8 %)

직원수  
**52,018 명**

## 목표치

2012년 매출액  
**100억 유로**  
(+ 2 %)

**부이그 건설**은 건설, 토목 및 전기와 서비스 분야의 전 세계적 주요 기업이다. 부이그는 프로젝트의 자원 조달, 설계, 건설, 운영, 사후관리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 뛰어난 영업 활동

2011년 **수주량**은 109억 유로로, 2007년의 기록적 수주량에 근접하는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프랑스의 수주량은 68억 유로로, 특히 대형 PPP(임대형 민자사업) 사업 수주에 힘입은 바 크다.

특히 경제위기에 덜 민감한 국가(스위스, 싱가포르 등)에서 역동적 영업활동의 결과, 국제 부문의 수주량은 41억 유로를 기록하였다. 이는 영국의 리드비더사 통합후 그 실적도 합당한 결과이다.

### 견조한 사업 실적

2011년 부이그의 **매출액**은 건설 및 토목(84 %)과 전기 및 서비스(16 %) 합산 6 % 증가한 98억 200만 유로에 달했다. 프랑스(55 %)와 국제부문(45 %)이 모두 이러한 성장에 기여하였다(2010년 대비 각각 5 %, 8 % 성장).

**영업이익**은 3억 5300만 유로(매출액의 3.6 %)로 증가하였으며, **순이익**은 매출액의 2.3 %에 달한다. 29억 유로의 **순현금 보유**에 힘입어, 부이그 건설은 건실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 주요 사항

### → 주요 계약 체결:

파리의 새로운 국방부 건물(11억 유로) • 파리시 공공장소 조명 계약(1.17억 유로) • 싱가포르의 블러섬 주택단지(9300만 유로).

### → 공사 진행중인 사업:

마이애미 항의 터널(미국)  
• 오를레앙의 새 병원.

### → 인도 완료 사업:

퍼스트 빌딩 • 올킬루오 토의 EPR 원자력 발전소(핀란드).

### → 지속가능한 건설: 건물 수주의 55 %가 환경 인증 또는 라벨 건물(2010년 53 %).

## 기록적 수주잔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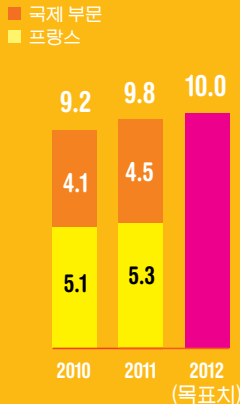
2011년 말 현재 수주잔량은 8 % 증가한 153억 유로이다(그 중 49 %가 국제 부문 수주잔량). 2012년 기수주 물량은 100억 유로로 책정한 2012년 매출액 목표치의 78 %에 달한다. 수주잔량 중 "중기" 및 "장기" 계약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가시성이 향상되었다.

부이그 건설은 자사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 부문**, 특히 역동적 경제활동을 보이는 지역에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건설**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래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강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조르당 바레, 건설 기술과정 학생, 학업과 현장근무를 병행하는 건설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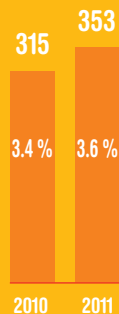


### 매출액 단위: 십억 유로



### 경상영업이익 단위: 백만 유로

경상영업이익을 %로 표기



### 순이익\* 단위: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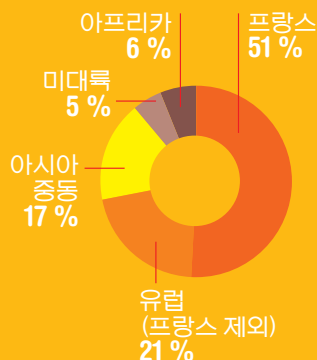
### 순현금 단위: 십억 유로



### 수주잔량 단위: 십억 유로



### 지역별 수주잔량



# 프랑스 부동산 개발의 선두 주자

2011년 9월, 르몽의 Green Office®  
인도 완료

## 주요 수치

2011년 매출액  
**24.65억 유로**  
(+ 2 %)

경상영업이익  
**8.2 %**  
(- 0.2 포인트)

그룹 지분 순이익  
**1.2억 유로**  
(+ 11 %)

직원수  
**1,583 명**

## 목표치

2012년 매출액  
**24.5억 유로**  
(=)

**부이그 부동산**은 프랑스 35 개 지사와 유럽의 4 개 지사를 거점으로 주택, 기업 및 상업 부동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11년 부이그 부동산은 프랑스 주택 시장 1위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다.

### 주택 사업

2011년 주택 시장이 현격히 후퇴한 프랑스에서 부이그 부동산은 리더사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다.

부 이 그 부 동 산 은 **예약매물** 14,723 채(프랑스에서 14,314 채)를 기록하며 **시장 점유율**을 강화하였다.

"엔트리급-중급" 포지셔닝에 따라 부이그 부동산은 특히 프랑스 도시재개발청(Anru) 지정 지역(부가가치세 5.5 % 적용)을 중심으로 주택 최초 구입자를 위한 상품을 개발하여 이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였다. 또한 임대주택공사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였다.

### 기업 및 상업 부동산 시장

기업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이그 부동산은 7억 8100만 유로 상당의 **예약매물**을 확보하였다.

부이그 부동산은 다음 3대 축을 중심으로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 클라란스 및 슈나이더 일렉트릭 본사 건축처럼 **튼키 방식의 건물**;
- 에너지 생산 건물(positive energy)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최초의 사무실 건물인 **Green Office®**를 통한 **최고에너지효율 건물**. 르몽의 Green Office®(스테리아 임대, 스킨스 매입)에 이어,

(1) 열효율 진단을 기반으로, 총체적 부동산 접근방식을 통해 원래의 건축미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기존 건물의 가치 제고 잠재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주요 사항

### → 주택: 예약매물 14,723 채

- 사업의 100 %를 BBC-effinergie® 라벨로 진행
- 프랑스 도시재개발청 (Anru) 지정 지역 주택 2,500 채 이상 (부가가치세 5.5 % 적용 지역).

### → 기업 및 상업 부동산:

Green Office® 시장의 잠재력 확인 • 최초의 민영 CPE\* 체결 • 파르만 (파리) 을 기관 투자자에게, 오렌지 TPSA (바르샤바) 를 카타르 지주회사에 매각.

### → RSE: 프랑스 최대의 기업 주관 연대의 날 Solid'R에 직원 1,200 명 참여 (2011년 4월 8일).

(\*) 에너지 효율 계약

샤트네-말라브리와 르외이 말메 종(오-드-센느 지방) 에도 두 동의 새로운 Green Office® 를 개발중이다.

- Rehagreen®<sup>1</sup> 방식을 통한 리노베이션

## 혁신

지속가능한 부동산 전문사 부이그 부동산은 2011년 지자체의 **지속가능 지구** 개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UrbanEra®**를 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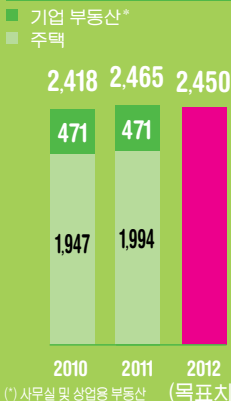
이에 따라 이씨-레-몰리노의 IssyGrid®, 스트라스부르그의 유럽의회 기업밀집지역 근처의 왁켄 사업, 리옹의 콩플뤼앙스 반도의 에너지 생산 주상복합 단지 히카리 등 3대 대형 사업이 시작되었다.

고객관계 담당자  
캐트린느 그라비에  
(이불린 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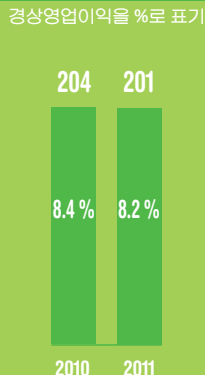
## 매출액

단위: 백만 유로



## 경상영업이익

(단위: 백만 유로)



## 순이익\*

단위: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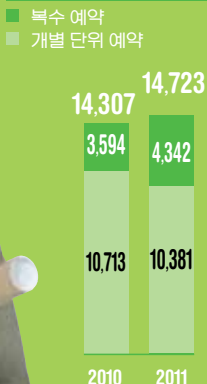
## 순현금

단위: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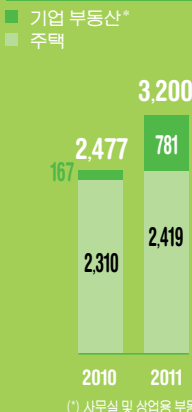
## 주택

예약매물수



## 예약매물

단위: 백만 유로





# 도로 건설 부문의 세계 제일 기업



리쿠르(숨 지방) 근교 A29  
고속도로 낮춤 공사장

## 주요 수치

2011년 매출액  
**124.12억 유로**  
(+ 6 %)

경상영업이익  
**3.8 %**  
(+ 0.7 포인트)

그룹 지분 순이익  
**3.36억 유로**  
(+ 50 %)

수주잔량  
**65억 유로**  
(+ 5 %)

직원수  
**62,886 명**

## 목표치

2012년 매출액  
**125억 유로**  
(+ 1 %)

전세계 50개국에 진출한 콜라스는 교통 인프라의 시공 및 사후관리 부문의 리더사이며, 해당 산업의 전문야를 아우르고 있다.

성장에 우호적이지 못한 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2011년 콜라스는 2010년 대비 매출액 6% 신장을 달성하였다. 특히 중부유럽에서 다각적인 조정 활동을 통해 수익성이 상당히 제고되었으며 순이익도 크게 상승하였다(+ 50 %). 콜라스는 건실한 재무상태와 높은 수주잔량(+ 5 %)으로 2012년을 시작하였다.

프랑스 본토에서 도로, 방수, 철도 및 신호 부문 계열사는 성장세를, 파이프라인 부문 계열사는 하락세를 보였다. 레유니옹 시장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해외영토는 서 인도제도의 시장침체와 마요트의 장기 파업의 영향으로 악영향을 받았다.

북미지역은 매우 불리한 기상 조건으로 인해 상반기에 사업 진행이 지연되었으나 하반기 우수한 실적을 통해 이를 만회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북유럽의 경우 벨기에와 스위스가 영국과 아일랜드의 긴축 정책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를 상쇄해 줌으로써 만족스러운 성과를 보였다.

중부유럽의 매출액은 감소하였으나 대규모 조정 작업을 통해 손실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었다. 아프리카, 인도양, 마그레브 지역은 2010년보다는 약간 저조한 사업실적을 보였으나 아시아 / 호주는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 주요 사항

- A63 고속도로(프랑스): 양허 및 공사 시작.
- 프랑스의 도로 PPP\* 사업: 비시 우회로 • 플레시-로벵송의 도로관리.
- 기타 주요 계약: 캐나다의 고속도로 • 모리스의 공항 • 두르, 디종, 브장송 (프랑스) 및 카사블랑카 (모로코)의 트램웨이 • 카라카스 (베네수엘라) 및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의 지하철 • 영국의 철도 네트워크 관리.
- 감마 머트리얼스사(모리스)의 지분 50% 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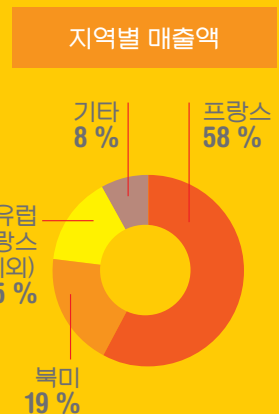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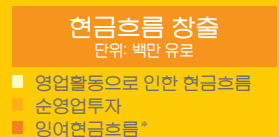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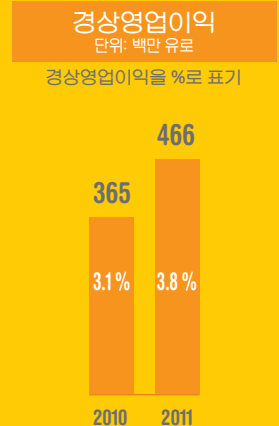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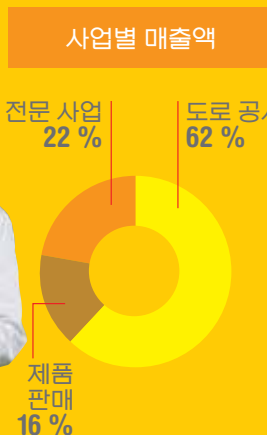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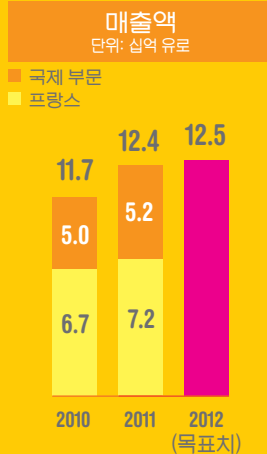
(\*) 임대형 민자사업

## 생산 활동

2011년 콜라스는 골재 1억 100만 톤(보유량은 25년 생산량에 해당하는 27억 톤), 코팅재 4700만 톤(저온 코팅재 12%, 재활용 코팅재 12%), 유제 및 접합제 160만 톤(콜라스가 세계 1 위이다), 역청 56만 톤을 생산하였다.

동시에 콜라스 그룹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추구하였는데, 특히 에너지원 절감 및 탄산가스배출 감소, 안전 및 다양성에 대한 활동에 주력하였다.

R&D 엔지니어  
알렉산드라 바류스망





# 프랑스 제1의 민영 텔레비전



TF1의 모든 매체에 럭비 월드컵 방송

## 주요 수치

2011년 매출액  
**26.2억 유로**  
(=)

경상영업이익  
**10.8 %**  
(+ 2 포인트)

그룹 지분 순이익  
**1.83억 유로**  
(- 20 %)

직원수  
**4,122 명**

무료 텔레비전 시장의 리더사인 **TF1** 그룹은 정보와 오락을 제공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유료 텔레비전 분야에서도 활발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인터넷, 시청각 저작권, 제작 및 라이선스 등의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였다.

경제, 경쟁적 환경이 안정화된 2011년, TF1의 매출액은 26억 2000만 유로에 달하였다. 2011년 방송된 광고량의 감소로 TF1 채널의 광고 매출액은 15억 400만 유로 감소하였다. 경상영업이익은 23 % 증가하였는데, 경상영업이익률은 2 포인트 상승한 10.8 %를 기록하였다. 그룹의 순이익은 1억 8300만 유로에 달하였다.

## 새로운 성과

프랑스 텔레비전 리더사의 입지에 힘입어 TF1 채널은 2011년 100대 최고 시청률 중 99건을 기록하였다(TF1 채널 역사상 두 번째로 우수한 실적). 시청률 점유율은 4 세 이상 개인 시청률의 23.7 %<sup>1</sup>, 구매를

책임지는 50세 이하 여성 시청률 26.7 %<sup>1</sup>을 기록하였다. 프랑스 국내 5위 무료채널인 **TMC**는 이 두 타겟 그룹 시청률 점유율 3.5 %<sup>1</sup> 및 3.9 %<sup>1</sup>를 기록하였다. **NT1**은 시장 최고의 시청률 점유율 성장을 보여주었다(각각 19 %<sup>1</sup> 및 50 %<sup>1</sup>). 이 두 채널은 TF1이 핵심사업 부문인 무료 텔레비전 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나가는 양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 디지털의 성공

디지털 분야에서 TF1은 디지털 방송 제공을 하나의 통합적인 브랜드인 **MYTF1**로 결집 시킴으로써 모든 매체(인

## 목표치

2012년 매출액  
**26.2억 유로**  
(=)

(1) 미디어메트라의 미디어마트 2011 (2) i트렌스 데이터 (3) 출처: e스마트 스트리밍 TV

## 주요 사항

- TF1, 2011년 최고시청률 100 건 중 99 건 기록.
- 전채널 통산 2011년 최고 시청률: 럭비 월드컵 프랑스-뉴질랜드전 시청자 1540만 명(10월 23일).
- MYTF1을 중심으로 다매체 디지털 방송을 결집.
- 영화 <레 쟁투샤블>, 2011년 1700만 관객 동원.
- 다양성 라벨(프랑스 규격협회 Afnor 인증)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구.

(\*) 미디어메트리의 미디어마켓 2011

터넷, 휴대폰, 태블릿, 인터넷 TV)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였다. 2011년 200만 건<sup>2</sup> 이상의 MYTF1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와 재방송 텔레비전에서 5억 4700만<sup>3</sup> 건의 무료 비디오 시청으로, TF1은 각 매체를 횡적으로 연결하며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자사 무료 방송의 파워를 입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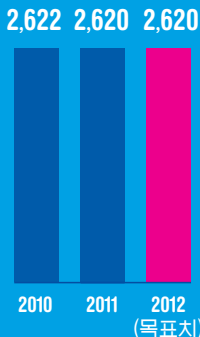
또한 2011년 다른 다각화 사업을 합리화함으로써, 조직이 재정비된 그룹의 건실한 성장 기반을 다졌다.

**사회적 관계와 다양성**  
분야의 이니셔티브를 발전시킴으로써 TF1 그룹은 책임있는 시민 기업으로서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프로그램 진행자  
드니 브로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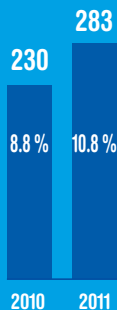


### 매출액 단위: 백만 유로



### 경상영업이익 단위: 백만 유로

경상영업이익을 %로 표기



### 순이익\* 단위: 백만 유로



### 프로그램 편성 비용 단위: 백만 유로

예외적인 스포츠 경기



### 그룹의 시청률 점유율\* 4 세 이상의 개인

TF1 TMC NT1



### 재방송 TV에서 시청된 무료 동영상

단위: 백만 건/월



(\*) 미디어메트리

# 이동통신, 유선통신, TV 및 인터넷 사업자



언제나 고객관계 1위  
기업 부이그 텔레콤

## 주요 수치

2011년 매출액  
**57.41억 유로**  
(+ 2 %)

경상영업이익  
**9.8 %**  
(- 2.5 포인트)

그룹 지분 순이익  
**3.7억 유로**  
(- 17 %)

직원수  
**9,870 명**

## 목표치

2012년 매출액  
**51.4억 유로**  
(- 10 %)

종합적인 전자통신 사업자 **부이그 텔레콤**은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과 1250만 고객에 대한 서비스로 타사업자와의 차별성을 확고히 하고 있다. 부이그의 고객 서비스는 두 가지 상을 수상함으로써<sup>1</sup> 그 수준을 인정받은 바 있다.

불리한 규제 환경과 치열한 경쟁이 두드러졌던 2011년, 부이그 텔레콤은 369,000 명의 신규 **이동통신요금제** 고객과 433,000 명의 **고속유선통신** 고객을 확보하였다. 결합 매출액은 57억 4100만 유로로, 총액이 동일한 수준인 시장에서 2010년 대비 2 % 성장하였다. 접속료 하락이 없었다면 매출액은 8 % 신장을 기록했을 것이다. 순이익은 3억 7000만 유로를 기록하였다.

서비스 품질은 부이그 텔레콤의 우선순위로, 부이그 텔레콤은 계속 고객 서비스 1위를 유지하고 있다<sup>1</sup>.

## 무선통신: 혁신적인 서비스 제안

2011년 초 부이그 텔레콤은 고객의 구매력에 우호적인 정책을 펴기로 결정, 프랑스 정부가 결정한 부가가치세 인상을 요금에 반영하지 않았다. 15 년간의 혁신의 연장선상에서 부이그 텔레콤은 인터넷 상에서만 판매되는, 디지털 세대를 타겟으로 한 브랜드 **B&YOU**를 런치하였다. B&YOU는 약정기한 없이 24 시간 내내 통화, 문자, MMS 무제한 사용 요금제이다. 또한 이에 보완하여 모든 음성 그리고/데이터 사용에 적합한 **에덴** 요금제를 런치했는데, 약정기간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고, 새로운 기기 구

(1) 2011년 TNS 소프레스-베어링포인트 고객관계상 1 위(이동통신 부문은 5 년 연속 수상, 유선통신 / 인터넷 사업자 부문은 첫 수상) (2) 가상이동통신사업자(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 주요 사항

- **2011년 1월:** 텔레비전 서비스가 제공되는 무선통신 요금제 부가가치세 인상분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최초의 사업자.
- **2011년 5월:** 무선통신 부문 (5년 연속) 및 인터넷-유선통신<sup>1</sup> 부문 2011년 고객관계상 1위.
- **2011년 6월:** 고속 유선통신 고객 1백만 명 상회.
- **2011년 7월:** 디지털 세대를 위한 첫 요금제 B&YOU 런치.
- **2011년 10월:** 다양성 라벨\* 획득 • 새로운 요금제 에덴 런치.

(\*) Afnor 인증(Afnor Certification)의 라벨

입과 연계하여 가입할 수도, 기기 없이 가입할 수도 있는 요금제이다. **에덴** 요금제를 사용하면 24 개월마다 신규 고객보다 더 저렴하게 새로운 기기를 구입할 수 있다. 부이그 텔레콤은 또한 2011년 말 현재 160만 명<sup>3</sup>의 고객을 확보하여 MVNO<sup>2</sup> 시장에 도 진출하였다.

### 유선통신: 강한 성장

이데오의 성공, 이미 인정 받은 바 있는 양질의 서비스<sup>1</sup>, 7백만 가구를 커버하는 **광통신 Bbox**에 힘입어 부이그 텔레콤은 고속 유선통신 시장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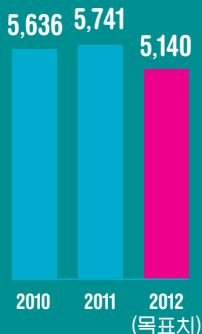
2011년 백만 고객 고지를 넘은 부이그 텔레콤은 2년 연속 시장 **순성장**의 가장 큰 몫을 점유하였다.

라발 위임  
클림 에너지  
나발 부갈렘

(3) 활성 고객 추정치

###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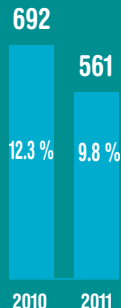
단위: 백만 유로



### 경상영업이익

단위: 백만 유로

경상영업이익을 %로 표기



### 순이익\*

단위: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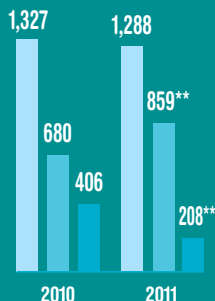


(\*) 그룹 지분

### 현금흐름 창출

단위: 백만 유로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순영업투자
- 잉여현금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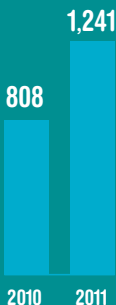


(\*) 운전자금 소요 변동 불포함

(\*\*) 2.6 GHz 주파수 투자 불포함 (2.28억 유로)

### 고속 유선통신 고객

단위: 천 명



### 이동통신 고객

단위: 천 명





## 4G 주파수: 품질과 서비스

부이그 텔레콤은 프랑스 인구의 93 %를 커버하는 3G+ 네트워크를 보완하여 2011년 말 800 MHz와 2,600 MHz 대역대 등, **4 세대(4G) 주파수 2 블록**을 구입하였다. 부이그는 이들 블록을 20년간 인수함으로써 주파수 자산을 강화하고 고객들에게 시장에 존재하는 최고의 기술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2,600 MHz 대역이 도시지역용이라면 **"황금대역"이라 불리는 800 MHz 대역**은 인구밀도가 보다 낮은 지역을 커버할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네트워크 커버력을 향상시키고 건물 내부 투과력도 더욱 강한 대역이다.

데이터의 빠른 증가(통신, 서비스, 정보, 교육 등)와 사용의 진화에 발맞추어 부이그 텔레콤은 고객들에게 3G를 월등히 상회하는 **초고속 이동통신의 편리함**을 제공할 것이다.

## 환경: 휴대폰 재활용

환경 보호, 책임있는 시민 기업 정책에 입각하여 부이그 텔레콤은 2011년 자사의 인터넷 사이트 [bouyguestelecom.fr](http://bouyguestelecom.fr)에 **중고 스마트폰** 샵을 오픈하였다.

기업 휴대폰 재활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신규폰 가격의 50 % 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되는 이 중고폰들은 보카주 워크샵(엠마우스 프랑스)이 수리한 것으로, 약정기간 없이 판매되고 있다.

**상세정보 조회:**

<http://mobile-occasion.bouyguestelecom.fr>





## 보다 더 많은 이들에게 초고속 통신을

진출한 지 얼마 안되어 유선통신 시장의 입지를 확고히 한 부이그 텔레콤은 **광통신 시장**의 입지도 강화할 생각이다. 뉴메리카블, SFR, 그리고 최근에는 프랑스 텔레콤-오랑주와의 협정 체결을 통한 광통신 서비스 커버 지역의 확대로, 부이그 텔레콤은 거의 1300만 가구에 광통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혁신 분야에서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2012년 봄 초고속 버전 및 ADSL 버전으로 소개될 **Bbox 상사시용**을 들 수 있다. Bbox 상사시용은 가장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사용 가정에 새로운 디지털 체험을 제공할 것이다. 광섬유 버전의 경우 단 하나의 모뎀이 모든 콘텐츠와 기기의 컨버전스 포인트를 구성하게 되므로 공간도 절약된다.

## 고객 관계를 중심에

2011년 5월 창사 15년을 맞은 부이그 텔레콤은 유선통신 및 인터넷 부문 **고객관계 1위\***로 선정되었으며, 이동통신 부문에서는 5년 연속 1위로 선정되었다. 매년 수여되는 이 상은 정보의 명확성, 신속한 반응, AS 및接客의 품질 등 고객관계 분야에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평가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부이그 텔레콤은 또한 모든 사업부문의 **고객 상담원들의 노하우**를 평가하는 서비스 부문 <고객센터> NF 인증을 획득한 유일한 사업자이기도 하다.

위의 상과 인증, 그리고 650 개 클럽 매장망은 부이그 텔레콤이 양질의 고객관계를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입증하고 있다.

(\*) 2011년 TNS 소프레스-베어링포인트 고객관계상  
(이동통신 및 유선통신/인터넷 사업자 부문)



터키 방식의 발전소 건설  
세계 1 위사 알스통

## 주요 수치

2011/12년 회계년도  
상반기 수치  
(2011년 4월 1일 ~ 9월 30일,  
알스통 그리드 포함)

매출액  
**93.89억 유로**  
(+ 10 %)

영업이익  
**6.7 %**  
(+ 0.6 포인트)

그룹 지분 순이익  
**3.63억 유로**  
(+ 9 %)

수주잔량  
**101.83억 유로**  
(+ 45 %)

직원수  
**92,200\* 명**

(\*) 2011년 12월 31일 기준

92,200 명의 알스통 직원들은 전세계 100여 개국에서 4대 사업부문 - 써멀 파워, 리뉴어블 파워, 그리드, 트랜스포트 - 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심에서 일하고 있다.

## 프로필

알스통은 철도 교통과, 발전 및 송전 인프라 부문의 세계적인 리더사이다.

2011/12년 회계년도의 첫 9개월 동안 알스통의 수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20 % 상승하였다. 2011년 12월 31일 기준 수주량의 약 60 %를 차지하는 신흥국이 이러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 전기 생산

“청정 에너지”의 선두주자 알스통은 전기발전의 모든 기술 분야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터키 방식의 발전소 건설, 수력 발전, 발전산업용

서비스 부문의 세계 1위 기업인 알스통은 시장에서 가장 종합적인 제품 라인업을 제공하고 있다.

써멀 파워는 가스, 증기, 원자력 발전과 서비스, 자동화 및 제어 분야를 아우르고 있으며, 알스통 리뉴어블 파워는 수력, 풍력, 태양 및 기타 재생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 송전

알스통 그리드는 송전 부문 세계 3 위사로, 고압 및 초고압 분야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지능형 전력망(스마트 그리드)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 주요 사항

- 미래의 시장에 보다 잘 부응하기 위하여 **4개 부문으로 조직 재정비**
- 2011년 4월: 말레이시아의 **화력 발전소** (10억 유로)
- 2011년 6월: 브라질의 **풍력 발전소** (2억 유로)
- 2011년 9월: 러시아의 **기관차** (4억 유로)
- 2011년 12월: 폴란드의 **화력 발전소** (9억 유로);  
영국의 **트램웨이** (3억 5000만 유로)
- 2012년 1월: 스웨덴의 **직류 고압선** (2억 4000만 유로)



고속 및 초고속 전철 세계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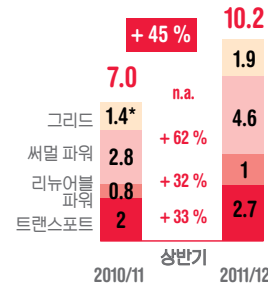
위기시의 수주 부진을 반영하고 있다. 영업이익은 판매량 하락의 악영향으로 6억 2700만 유로에 그쳤는데, 이는 영업이익률 6.7 %에 해당한다.

### 3분기에도 긍정적인 트렌드 확인

알스통은 3분기에도 49억 유로의 수주량을 보이며 활발한 영업활동을 보이고 있다. 매출 또한 점차적인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

### 알스통의 부문별 수주

단위: 십억 유로



(\*) 4 개월 기준으로 결합 재무제표에 포함시킨 수치 (2010년 6월 ~ 9월). n.a. 해당 사항 없음

### 조정 및 발전의 지속적 추진

알스통은 고속성장 국가에 진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고 있다. 2011년에도 다수의 신규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 특히 알스통과 상하이 전기는 공동 회사 창립을 선언하였는데, 새 회사는 화력발전소용 보일러 부문 세계 1위사가 될 것이다. 동시에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써멀 파워와 트랜스포트 부문은 유럽과 북미에서 인력 조정계획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였다.

### 철도 교통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의 전문적 역량을 갖고 있는 알스통은 철도교통 시장에서 가장 광범위한 제품과 서비스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알스통 **트랜스포트**는 고속철 및 초고속철 생산 세계 1위사이자 도시교통 및 지방열차 시장의 세계 2위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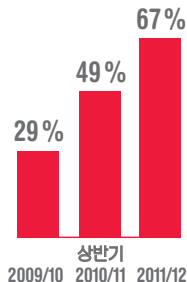
## 실적

### 상반기

#### 수주실적 호조

2011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알스통은 102억 유로의 양호한 수주실적을 거두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45 % 상승한 것으로, 2010/11년 회계년도 하반기에 시작된 시장회복을 입증하고 있다. 매출액은 10 % 하락한 94억 유로로, 경제

### 알스통 수주 중 신형시장의 비중



### 알스통 - 부이그: 산업적 시너지 효과

기업들이 나날히 복잡해지는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오늘날, 시너지를 이루며 함께 일하면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또한 전문분야가 다

랑스의 트램웨이는  
2011년 4월 개통하였다



양해짐에 따라 상호보완성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따라서, 부이그와 알스통은 협정을 체결한 이후 서로의 역할을 한데 모아 함께 전진하고 있다.

수많은 인프라 사업에서 이러한 협력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님과 몽펠리에의 우회철로 사업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또한 에너지 및 지능형 전력망 개발을 위한 혁신 분야에서도 확고한 협력이 이루어졌다.

## 공동사업

2006년 체결된 랑스 트램웨이 계약이 알스통과 부이그의 협력의 첫 장을 열었다. 그 이후 알스통 트랜스포트, 콜라스와 부이그 건설은 Mars(Mobilité agglomération rémoise: 랑스 도시지역 교통) 컨소시움하에 한데 모아 2011년 4월 개통된 랑스 트램웨이의 양허를 공동 소유하고 있다. 이 임대형 민자사업(PPP) 계약은 재원 조달, 설계, 건설, 30년간 운영을 아우르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다양한 교통수단에 따라 공공 공간을 재배정하고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었다(트램웨이 노선을 따라 자전거 전용 도로 7 km 설치, 노면의 60 %에 잔디 조성, 선로 근처에 가로수 식수).

2007년부터 알스통 트랜스포트, 콜라스와 부이그 건설은 이집트에서 카이로 지하철 3호선의 첫 두 구간을 함께 건설하고 있다. 대부분의 노선이 지하노선인 3호선 지하철은 카이로의 동서를 관통하게 되며, 2020년 완공 예정이다. 30 km에 걸쳐 29개의 역이 배치된 노선이다. 2011년 이 세 회사는 님과

몽펠리에의 우회 선로 입찰에 공동으로 응찰하였다. 부이그 토목, DTP 테라스망, 콜라스 레일, 콜라스 미디어-메디테라네와 알스통 트랜스포트가 참가한 컨소시움은 프랑스 철로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프랑스 철로(RFF, Réseau Ferré de France)로부터 임대형 민자사업(PPP)의 유력 낙찰사로 지정되었다. 25년에 걸친 본 PPP 사업은 님과 몽펠리에 사이의 80 km에 달하는 새로운 선로 인프라의 재원조달, 설계, 건설, 운영, 사후관리를 포괄하고 있다. 2012년 착공할 이 우회선로 사업은 님과 페르피냥 사이의 화물 및 승객 혼용 고속철 노선 건설의 첫 단계이다. 개통은 2017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 향후 전도유망한 발전 분야

에너지와 지능형 전력망 분야에서 알스통과 부이그는 알스통 그리드, 알스통 파워, 부이그 부동산 및 엑스프림(ETDE)을 통해 2011년 1월 친환경 지역을 위한 에너지 관리 서비스 공동회사 엠빅



## 스마트 그리드는 지능형 전력 송배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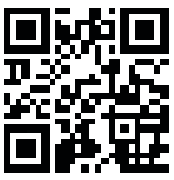
여기에서는 친환경지역의 에너지 관리를 볼 수 있다



스를 창립하였다. 엠빅스는 이들 4 개 기업의 경험을 집결하여 사업장, 캠퍼스, 친환경 지역의 포트폴리오 감사에서 지능형 전력 송배전망인 스마트 그리드 분야 최신 기술에 기반을 둔 정보 시스템을 통한 에너지 성과 최적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5월 프랑

스 최초의 도시 스마트 그리드이자 엠빅스 적용예인 IssyGrid®가 이씨-레-물리노(오-드-센느 지방)에서 런치되었다. 이 전력망은 1만 명이 근무하는 사무실 지역의 에너지 관리 및 최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3에는 포르 디씨 지속가능 지구(주민 5천 명)에 이 전력망이 확장될 것이다. 엠빅스는 전력 소

비, 생산, 저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임무를 부여받았으므로, IssyGrid®를 통해 여러 종류의 전력소비(사무실, 주택, 전기 자동차)를 측정하고 재생 에너지 생산 및 저장 방법을 구축하며 에너지 시스템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랑스에 위치한 인쇄소는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인증 PEFC를 받았으며 친환경 인쇄 Imprim'vert® 브랜드를 소유하고있습니다. 꼭 필요한 수량만큼만 한정인쇄한 문서이므로 본 문서를 보관해 주십시오. 또한 버리실 때에는 분리수거해 주십시오. 부이그는 프랑스에서 종이 재활용을 담당하는 EcoFolio에 환경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www.bouygues.com](http://www.bouygues.com)에서 인터랙티브한 기업개요(슬라이드, 동영상, 자료 등)를 만나실 수 있으며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프린트를 하실 때는 필요한 부분만 프린트해 주십시오.

표지: 부이그 건설, 부이그 부동산, 클라스, TF1의 본사; 부이그 텔레콤의 스킷나(영양, 마케팅, 행정업무 부서). 크레딧: 알스톰 사진자료실(p. 30), T. Bel(p. 33), F. Berthel(표지), J. Bertrand(p. 22), Y. Chanoit(표지), A. Da Silva/Graphic-images(표지, 표지 4면, p. 5, 11, 19, 21), H. Douris(p. 12), A. Février(표지 4면, p. 31), M. Josselo(표지), M. Lucas(p. 27), Nils HD/TF1(p. 25), Presse Sports(p. 24), P.-E. Rastoin(p. 1), F. Sautereau(p. 32), E. Sempé(p. 20), P. Stroppa(p. 23), L. Zylberman(p. 2, 32). 건축: Anima-Artelactory(p. 18), Arquitectonica(표지), Kengo Kuma & Associates/CRB architectes(p. 13), R. Lopez & Associés, C. de Portzamparc(표지), K. Roche(캘린저), K. Roche J. Dinkeloo & Associates/SRA-Architectes(32 Hoche), P. Riboulet(표지), Saubot et Jullien(표지).





부이그 그룹의 본사 Le 32 Hoche



환경 리노베이션 진행중인 부이그 건설의 본사 챌린저

**BOUYGUES**

## 부이그 그룹

본사

32 avenue Hoche  
75378 Paris cedex 08  
France

전화: +33 1 44 20 10 00  
[www.bouygues.com](http://www.bouygues.com)

## 부이그 건설

본사

챌린저

1 avenue Eugène Freyssinet - Guyancourt  
78061 Saint-Quentin-en-Yvelines cedex  
France

전화: +33 1 30 60 33 00  
[www.bouygues-construction.com](http://www.bouygues-construction.com)

## 부이그 부동산

본사

3 boulevard Gallieni  
92445 Issy-les-Moulineaux cedex  
France

전화: +33 1 55 38 25 25  
[www.bouygues-immobilier.com](http://www.bouygues-immobilier.com)

## 콜라스

본사

7 place René Clair  
92653 Boulogne-Billancourt cedex  
France

전화: +33 1 47 61 75 00  
[www.colas.com](http://www.colas.com)

## TF1

본사

1 quai du Point du jour  
92656 Boulogne-Billancourt cedex  
France

전화: +33 1 41 41 12 34  
[www.tf1.fr](http://www.tf1.fr)

## 부이그 텔레콤

본사

32 avenue Hoche  
75008 Paris  
France

전화: +33 1 44 20 10 00  
[www.bouyguestelecom.fr](http://www.bouyguestelecom.fr)